

캠프를 다녀와서

<p>일 시 : 2013년 7월 3일 ~ 5일 장 소 : 대천 한화리조트 주 관 : 전북대학교 공학교육 거점센터, 공주대학교 공학교육 혁신센터</p>	<p>기계자동차공학부 김희경</p>
<p>융복합 설계 캠프를 참가함으로써 정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p> <p>먼저, 학교에서는 같은 것만 배우다 보니 비슷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데 반해, 여러 학과에서 모인 캠프에서 브레인스토밍은 정말 다양하게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다.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이디어 선정에 있어 팀원을 설득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꼈다.</p> <p>팀 주제중 하나가 여성이었는데, 배 위에서 사용하는 기계적인 제품은 남성의 느낌을 많이 준다는 이유였다. 이로 인해 사람이 사는 환경, 지식 등으로 인해 생각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느낄 수 있었고, 그로인해 판매 시장 또한 넓어지거나 좁아질 수 있다고 느꼈다.</p> <p>짧은 시간에 만들고 복잡하지 않은 제품이었지만, 만들면서 삶을 편하게 만들기 위한 제품의 탄생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 실험과 시행착오를 겪는지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p> <p>그리고 팀의 조장을 맡으면서, 처음 만난 학생끼리 이루어진 팀을 이끌어 나가는 것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서로간의 어색함이고, 두 번째가 다양한 의견 중에서 제품의 방향을 잡는 것이었다.</p> <p>회의도중 방향설정을 일찍 못 해서 회의가 장시간 동안 지속되어 방향을 했었는데, 좋은 점은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쉽사리 결정이 나지 않아서, 다음 회의가 있으면 제품의 방향부터 설정한 후 회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p> <p>이번 융복합 캠프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유익한 시간이었다.</p>	